

# 철도-도로 연결, 개성-금강산 재개, 특구 '이젠 경제다'

(동-서해)

## 평양공동선언 합의문

강릉~제진, 문산~개성 구간 올해 안 연결공사 착공 못 박아

이산가족 상봉 정례화도 추진 금강산 상설면회소 조속 복구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오전까지 이틀간의 평양정상회담을 마치고 이날 평양 백화원연빈관에서 '9월 평양공동선언'을 채택함에 따라 남·북한을 잇는 철도와 도로 등 대동맥 연결 작업이 본격화된다.

또 남북으로 흩어져있는 이산가족들의 오랜 염원이었던 상봉 정례화도 적극 추진하기로 했다.

### ◆철도, 도로는 남측구간부터

우선 주목되는 것은 철도와 도로 연결 공사의 착공을 올해 안에 하기로 못 박은 것이다.

지금까지 정부는 대북제재를 의식해 남북 철도와 도로 연결 및 현대화 사업에 대해 적극적으로 나서지 못했던 것이 사실이다. 북미 정상회담에도 불구하고 여전히 북미 간 북핵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대북제재도 여전히 상황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이젠 대북제재와 상관없는 남측 구간의 공사에 대해서 가능하다는 시그널을 보내고 있다.

이날 공동선언에서 언급된 철도·도로 연결 공사는 주로 남한 지역에서 이뤄지



게 될 것으로 보인다.

이와 관련, 국토부는 최근 국회 업무보고에서 동해선 철도 남측 단절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 연결을 위한 사업 절차를 하반기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힌 바 있다.

구체적으로 동해선 남측 구간인 강릉~제진(104.6km) 구간과 경의선 고속도로 남측 구간인 문산~개성(11.8km) 구간으로, 총사업비는 동해선 철도 남측 구간은 2조3490억원, 경의선 도로 남측 구간은 5179억원으로 추산됐다.

철도 경의선은 2004년에 이미 연결돼 2007~2008년 문산~개성 구간에서 화물 열차가 운행하기도 했으나 북측 구간이 현대화되지 않아 시설이 노후화했다.

이와 함께 개성공단·금강산 관광 정상

화와 함께 서해경제자유특구와 동해관광공공특구를 조성하는 방안을 마련하기로 한 대목도 주목된다.

물론 남북은 '조건이 마련되는 데 따라'라는 단서를 붙였다.

금강산 관광이나 경제특구 등은 현대 북제재 상황에서 바로 추진하기에 논란을 일으킬 수 있기 때문이다.

서해 쪽에는 남한의 기업들이 입주하는 산업단지 형태의 경제특구가, 동해 방면에는 금강산 관광지와 연계된 관광 중심 특구가 구상될 것으로 전망된다.

특히 서해경제특구는 남한의 기술과 자본에 북한의 노동력을 결합한 형태의 개성공단과 같은 경제 공동체가 추진될 것으로 보인다.

경제특구는 문재인 대통령이 광복절

### 평화, 새로운 미래

2018 남북정상회담 합의

#### 9월 평양공동선언

- 군사적 적대관계 종식**
  - 판문점선언 군사분야 이행함으로써 채택
  - 남북군사공동위원회 가동
- 남북 교류협력**
  - 연내 동, 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 착공
  - 개성공단과 금강산관광 사업 정상화
  - 서해경제특구 및 동해관광특구 조성 협의
  - 자연생태계의 보호 및 복원 위한 남북 환경협력 추진
  - 방역 및 보건 의료 분야 협력 강화
- 이산가족 문제 해결**
  - 이산가족 상설면회소 개소
  - 이산가족 화상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 문화·체육 교류 협력**
  - 10월 중 평양예술단의 서울공연 진행
  - 2020년 올림픽 등 국제경기들에 공동 진출
  - 2032년 올림픽 남북공동개최 유치 협력
  - 10.4 선언 11주년 및 3.1운동 100주년 남북공동 기념행사
- 핵무기와 핵위협이 없는 한반도**
  - 동창리 연전사령장 미사일 방사능 유관국 참관 허 연구 폐기
  - 미국 상용조치 시 양면핵시설 영구 폐기
  - 한반도의 완전한 비핵화 남북 함께 긴밀히 협력
- 김정은 국무위원장 가까운 시일 내 서울 방문**

자료: 2018 남북정상회담 합의 /뉴스시스

소가 있지만 간헐적으로 열리는 상봉행사 이외에 상시적인 이용은 불가능했다.

이 면회소는 우리 정부가 남북 이산가족 상봉의 확대를 위해 남북협력기금에서 대한적십자사(한적)에 총 공사비 550억원을 무상지원해 세워진 건물이다. 강원도 고성군 온정리 조포마을에 있고, 연면적이 1만9835㎡로 전망대, 대연회장, 소연회장 등을 갖춘 지하 1층, 지상 12층의 면회소 건물과 면회사무소 2개 등으로 구성됐다. 또 2인실과 가족실 등 총 206개의 객실을 갖추고 있으며 최대 1000명까지 수용할 수 있다.

지난달 이산가족 상봉행사를 앞두고 해당 면회소에 일부 개보수가 이뤄지기도 했다.

남북 정상회담이 이날 상설면회소를 조기 개소하기로 함에 따라 현재 금강산 면회소 시설이 복구돼 쓰일 것으로 예상된다.

남북 정상회담 이외에 평양공동선언문에 남북 적십자회담을 통해 이산가족의 화상 상봉과 영상편지 교환 문제를 우선 해결하겠다고 명시해 주목된다. 이는 이산가족 고통화가 심각한 상황에서 이산가족의 고통을 줄여줄 실질적인 조치라는 평가가 나온다.

간헐적으로 한차례 100명 정도씩만나는 상봉 방식으로는 이산가족의 한을 풀기 요원하기 때문이다. 지난달 기준 남측에서 13만2731명의 이산가족 신청자 가운데 절반이 훌쩍 넘는 7만6024명이 사망했고, 생존자(5만6707명) 중 80세 이상이 62.6%(3만5541명)에 달한 것으로 파악됐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이대로 평양까지?

문재인 대통령과 김정은 북한 국무위원장이 19일 평양 남북정상회담 후 '9월 평양공동선언' 발표 기자회견을 통해 올해 안에 동·서해선 철도 및 도로 연결을 위한 착공식을 한다고 밝혔다. 사진은 이날 오후 개성까지 이어진 경의선 철도 임진강역. 위쪽이 개성 방향.

/연합뉴스

## 예술공연 관람한 '5월1일 경기장'은

### 수용인원 15만명... 北 최대 종합경기장

평양 중심 대동강 능라도에 자리

1일 완공됐다. 5월1일은 국제 노동절이다. 이에 따라 준공 직전까지는 '인민대경기장'으로 불렸으나 준공을 하면서 지금의 이름으로 바뀌었다.

문 대통령 일행이 이날 5월1일 경기장에서 관람한 공연은 '빛나는 조국'이다. 빛나는 조국은 북한의 대표적인 혁명 가요이자 군가다. 이에 따라 '제3의 애국가' 또는 '제3의 국가'로도 불린다. 해방 직후인 1946년에 만들어진 빛나는 조국은 김일성 주석이 승인한 곡이기도 하다.

북측은 문 대통령의 평양 방문을 환영하는 뜻에서 공연에 관련 내용을 담았다. 공연은 1시간 정도 진행됐다.

특히 문 대통령은 이날 공연에 앞서 경기장에 있는 15만명의 북측 주민들에게 인사말을 전하는 '깜짝 이벤트'도 했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

문재인 대통령과 부인 김정숙 여사 등이 19일 저녁 예술공연을 관람한 '5월1일 경기장'은 평양 능라도에 있는 북한 최대 규모의 종합체육경기장이다. 5월1일 경기장은 최대 수용인원만 15만명에 달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자동차 경주장을 제외하면 세계 최대 규모의 다목적 경기장으로도 꼽힌다.

경기장이 위치한 능라도는 양각도, 두루섬 등과 함께 평양의 중심을 흐르는 대동강에 위치한 섬이다. 면적은 1.3㎢, 둘레는 6㎞다. 평양 시내와는 두 개의 다리를 이용해 오갈 수 있다.

5월1일 경기장은 1989년 8월에 열린 제 13차 세계청년학생축전에 앞서 그 해 5월

## JY 등 경제인들 1호 방문현장은 '양묘장'

남북 산림협력 가속화 관측  
교육자 양성 평양교원대 방문도  
대동강수산물식당서 저녁식사

평양을 방문한 경제인들이 산업시찰 1호지로 '양묘장'을 찾았다.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구광모 LG 회장, 김용환 현대자동차 부회장 등 4대 주요 기업 총수를 비롯한 17명의 경제인들은 19일 황해북도 송림시 석탄리에 위치한 '조선인민군 122호 양묘장'을 방문했다.

양묘장은 묘목을 심어 기르는 곳으로 조선인민군 122호양묘장은 북한 양묘장의 본보기로 알려졌다. 2016년 5월 준공됐으며 김정은 위원장이 2015년 12월 재건을 지시했다. 규모는 약 47만㎡ 추정되며 연간 생산능력은 2000만 그루에 달한다.

북한은 김정은 집권 이후 산림녹화정책을 국가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다. 2016년 12월에는 김정은 위원장이 방한해 온도와 습도, 탄산가스함량, 통풍량, 관수량 등 나무모 재배를 위한 통합조종체계를 훌륭히 구축한 것에 대해 커다란 만족감을 표현하는 동시에 현대화의 과업을 제시했다.

이번 경제인들의 양묘장 방문을 두고 북한이 산림 녹화에 관한 남북한 경제 협력을 가속화하고 싶다는 의지를 표명하는 것 아니냐는 분석이 나오는 이유다.

이번 정상회담 공식 수행원에 김재현 산림청장도 포함되면서 남북의 산림협력 이 본격화될 것이라는 관측도 제기된 바 있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수행단에 포함된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 최태원 SK 회장 등 경제인들이 18일 인민회관에서 열린 리용남 북한 내각부총리 면담에 참석하고 있다.

/평양사진공동취재단

경제인들은 양묘장 방문에 이어서 평양시 보통강구역 서장동 소재의 '평양교원대학'을 찾았다. 평양교원대학은 평양 시내 소학교 및 학령 전 어린이 교육을 담당하는 교육자 양성기관이다.

위대성 교양을 위주로 하는 5대 교양 프로그램과 전자교양 자료, 교육지원 프로그램 개발, 12년제 의무교육 강령 집행을 위한 교재 집필 등도 하고 있다.

김정은은 작년 2월 평양교원대학을 방문해 교육의 과학화 정보화 현대화가 높은 수준에서 실현된 본보기 대학으로 잘 꾸리고 전국에 일반화할 것 지시한 바 있다. 올해 1월에는 새로 개건된 평양교원대학을 방문했다. 우간다 대통령, 중국리잔수 상무위원장 등 여러 인사가 이곳을

다녀갔다. 저녁에는 평양 시민들이 자주 찾는 것으로 알려진 대동강수산물식당에서 식사를 한다.

한편 전날 오후 3시 30분경 남측 경제인들은 리용남 북한 내각부총리를 비롯한 북측 인사들과 면담을 가졌다. 북한 황호영 지도국장은 이재용 삼성전자 부회장을 향해 "많이 봤습니다"라고 인사하며 악수를 청하는 등 훈훈한 분위기 속에서 대화가 이뤄졌다.

리 내각 부총리는 "처음 뵙지만 다 같은 경제인이고, 통일을 위한 또 평화 번영을 위한 지점이 같아 마치 구면인 것 같다"고 말했다.

/남북정상회담 특별취재팀